

Ayo Adewuya 박사 , 고린도후서, 9회, 고린도후서 8장, 베푸는 은혜

© 2024 Ayo Adewuya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고린도후서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아요 아데

우야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9, 고린도후서 8, 베푸는 은혜입니다. 다음 두 세션에서는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을 살펴볼 것이지만, 두 섹션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이 두 장, 8장과 9장에서 바울은 그의 사도적 사역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헌금 문제를 논의합니다. 바울은 어떤 식으로든 자신을 위해 기금을 모금하지 않았지만, 개인적인 지원을 위해 기금을 모금하는 데 약 10년을 보냈습니다. 고린도후서 7:1과 마찬가지로 이 두 장은 여담의 형태를 띠지만, 편지 전체의 실제적인 요점을 표현합니다.

따라서 이 구절들은 바울의 신학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 구절들은 사도로서의 그의 성실성을 옹호하는 그의 전반적인 주장의 일부로서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관계에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신약학자인 벤 위더링턴은 이를 대담한 수사적 움직임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그가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을 보는 방식입니다. 저는 그것에 동의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고린도인들과의 관계에서, 말하자면, 계란 껍질 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들의 가장 최근의 오해는 방금 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의 유대인 모교회 사이의 관계에 대한 더 큰 비전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8장과 9장에서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오랫동안 미뤄진 헌금을 완수하라는 그의 촉구에 응답함으로써 그들의

진실성과 그에 대한 확신을 보여줄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합니다.
보시다시피, 일어난 일은 바울과 고린도인 사이의 관계가 닳아 없어졌기 때문에 고린도인들은 얼마 동안 멈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 교회들 사이에서 모금을 했고, 그것은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40년대 중반에서 후반에 걸쳐 그 지역을 휩쓴 기근으로 신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모금의 목적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예루살렘 교회의 필요를 덜어주기 위한 것이었고, 따라서 전 세계 신자들의 상호 의존성을 표현한 것입니다.

둘째, 그것은 국가적, 지리적 경계를 초월하는 몸으로서의 교회의 본질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 헌금은 마지막 날에 이방인들이 선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 것이라는 유대인의 기대와 관련이 있으므로, 그것은 복음의 본질, 즉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동등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이었습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야만인이나 스키타이인이나 종과 자유인이나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28에서 볼 수 있듯이 말입니다. 헌금의 타이밍 자체가 매우 교훈적입니다.

바울은 자신과 고린도인들 사이의 미해결 문제 중 일부가 해결될 때까지 헌금에 관해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7:16에서 그가 보여준 확신이 생겼습니다. 아시다시피, 바로 그것이 목회적 지혜입니다. 교회에서 일이 잘 안 될 때는 기금을 모으지 않습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을 때, 바울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렸던 것이 중요하고, 그런 다음 그 부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시작하고 끝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포함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것은 8장 1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여 9장 15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끝납니다. 그래서 당신은 우리가 인 클루시 오라고 부르는 것을 형성하는 두 구절을 발견할 것입니다 . 이러한 것들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8-9장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아카이아, 아시아, 마케도니아에 있는 선교 교회들 사이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거나 예루살렘 공동체의 경제 상황을 구제하기 위해 장려해 온 지금의 헌금으로 돌아갑니다.

가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신자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복음 전파가 되어야 하는지, 사회적 행동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대화가 항상 있었습니다.

그건 거짓 이분법입니다. 전도와 사회적 행동은 함께합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존 웨슬리의 말을 빌리자면, 사회적 거룩함이 없이는 거룩함이 없습니다. 거룩함에 대해 말할 때, 사회적 거룩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참여해야 합니다. 바울이 우리가 구호 활동이라고 부르는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계에는 구호 활동을 과소평가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람들의 영혼을 돌보는 것뿐이고, 신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돌보아줄 것이라고 말하는 계층이 있습니다.

둘 중 하나가 아닙니다. 둘 다이고, 그리고요. 제가 가끔 말했듯이, 사람들에게 설교하기 전에 사람들에게 연어를 주세요. 연어 물고기를 주세요.

알다시피, 설교 전에 그들에게 연어를 좀 주세요. 연어를 먹고 나면 설교를 들을 준비가 될지도 몰라요. 그건 그냥 덧붙이는 말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바울에게서 이 점을 배웠습니다.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확실히 고린도인들의 헌금에 대한 태도는 남쪽으로 떨어졌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아서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이 제물은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의 사도적 사역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보입니다.

왜 우리가 그것을 알까요? 그는 예루살렘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위험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전달을 고집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0장 3절과 23절, 그리고 21장 4절 10~15절에서 그것을 봅니다. 바울이 모교회에 재정적 지원을 약속한 것을 이행하려고 했을 때, 모금 프로젝트는 구약의 언약 윤리와 연속성을 유지했습니다.

우리는 레위기 19장 17-18절과 미가 6장 8절에서 그것을 봅니다. 그리고 물론 유대교의 자선 행위도요. 마태복음 6장 2절에서 그것을 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모금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2절, 6장 2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 사이의 상호 관계의 본질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무엇을 합니까? 바울은 그러한 자발적인 형제 사랑을 유지했는데, 이는 이제 성령을 통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로 인해 기독교 윤리의 핵심에 영향을 미칩니다. 동료 신자들의 필요에 대한 바울의 관심은 그들이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누린 독특한 교제의 표현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기본적인 실제적 의미를 넘어 이 헌금은 바울에게 신학적으로 중요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신자들로 구성된 교회의 연대성에 대한 신학적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들의 상호 의존성, 그들의 영적 빛,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이방인의 영적 빛,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과 평등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거나 드러날 것입니다. 바울은 아마도 이 헌금이 이방인 선교에 대한 유대인의 의심을 달래줄 것이라고 바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종의 기독교 성전 세금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모교회의 우월성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현실, 이방인에게 구원의 선물을 직면하게 하거나 질투를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종말론적 순례도 아니었습니다.

이 은사의 목적은 전혀 그게 아닙니다. 바울은 교회를 도우면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영적 축복을 공유하는 이방인들이 물질적 축복으로 그들에게 봉사할 의무가 있다고 믿었고,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움직이기를 바랐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9장 12절에서 14절에서 그것을 봅니다. 이 헌금은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의 동등한 특권을 가진 구성원으로서 그들 사이의 교제의 유대감의 현실을 보도록 강요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그가 편지를 쓸 때까지 완성된 헌금이 이 정신으로 받아들여지도록 그와 함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더욱이 로마서는 고린도인들이 헌금에 온전히 협조했다고 암시합니다. 우리는 로마서 15장 23절에서 28절, 16장 1절에서 그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0절에 있는 누가의 기록은 그것이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에서 지침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일이 진행되는 것을 봅니다. 제 말은, 우리는 이 두 장을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서론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이 여기서 사용하는 것을 보는 것은 우리가 수사학, 즉 심의적 수사학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이는 수집물을 향해 지향되지만, 또한 고린도인들에게 그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바울 자신의 무죄함과 정직함과 고린도 사람들의 바울에 대한 확신과 신뢰. 보세요, 고린도 사람들의 모금 완료는 두 가지 모두를 보여줄 것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의 바울에 대한 확신과 신뢰.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염두에 두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다시피, 바울 시대의 사회적, 경제적 관계에는 우리가 후원자와 고객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후원자와 고객이 있습니다. 재정적 필요 때문에 사회적 지위가 평등하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 종종 일어납니다.

그 당시에는 대출 기관도, 은행도, 협동조합도, 금융 기관도 없었고, 당연히 여겨졌던 사회 안전망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는 개인적 후원이 실질적인 필수였습니다. 따라서 후원 관계에 수반되는 모든 경제적 이익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결과도 있었습니다.

후원자-고객 관계에는 명예와 수치의 문제가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물이나 호의를 주고받는 것은 수령자를 열등한 역할에 두고 후원자에게 감사와 명예로 응답할 의무를 지웠습니다. 그러한 관계는 동등한 관계인 것처럼 우정이라고 불렸지만, 그 라벨은 실제로 후원자-고객 관계였던 것을 정중하게 가리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한 것처럼 고린도인에게서 재정적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듯합니다. 그렇게 했다면 그는 부유한 고린도 후원자들의 지배 아래 사회적으로 열등한 권력 관계에 놓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그것이 바울이 고린도인들과 가진 문제의 일부입니다.

그는 그들에게서 돈을 받을 생각이 없었고, 그들에게서 지원을 받을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가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이 고린도인들의 고객으로서 자신을 그 아래에 두는 것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제 말은, 이 장과 물론 다음 장인 8장과 9장에도 살펴볼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7장 14 절에서 16절까지에서 본 화해와 개인적 따뜻함에 근거하여, 바울은 고린도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제물의 몫을 완수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그는 또한 그들의 상황에 그리스도인의 베푸는 은혜를 적용합니다. 그는 자신의 간청을 세 단계로 나눕니다. 첫째, 그는 8장 1절에서 15절까지 제물을 다 바쳐 달라고 부드럽게 요청합니다.

그런 다음, 두 번째로, 그는 8장 16절에서 9장 5절까지 예루살렘에 제물을 바칠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그런 다음, 마지막으로, 그는 9장 6절에서 15절까지 베푸는 그러한 관대한 베품의 축복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수사적 전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은혜라는 단어인 카리스를 가지고 놓고 있습니다 .

카리스 라는 단어를 다른 의미로 사용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진행하면서 알게 될 것입니다. 8장과 9장을 살펴보면, 그가 8장, 1절, 4절, 6절, 7절, 9절, 16절, 19절에서 그 단어를 사용했고, 9장, 8절, 12절, 14절, 15절에서 그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구절은 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바울의 수사적 전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앞서 말했듯이 은혜를 사용하여 포괄 을 형성 하고 문학적 책의 끝처럼 배치합니다.

그것이 이 구절에서 포함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울의 모든 서신이 시작과 끝에 어떤 형태의 카리스를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모든 서신.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8장에서, 지금 거기로 가보죠 . 그는 제물의 완성을 격려합니다. 1절부터 시작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 마케도니아 교회들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극심한 고난의 시련 동안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빈곤은 그들의 관대한 마음으로 넘쳐났습니다.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이 장의 시작 부분에서 살펴볼 세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바울은 7절에 이르기까지 직접적인 호소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냥 가서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호소합니다. 그는 7절까지 호소하지 않습니다. 그는 형제 자매 여러분, 마케도니아 교회들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호소는 7절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둘째, 그는 애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는 그들을 형제 자매, 아가페토이 ,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부르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의 관대함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는 돈이라는 새롭고 민감한 주제로 섬세하고 조심스럽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지금도 돈이라는 주제가 사역에서 여전히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목사가 재정에 관해서 정직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에게 찬사를 보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목사가 걸려 넘어진 곳이 바로 여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폴은 매우, 매우 조심했습니다. 돈에 대한 정직성, 재정에 대한 정직성, 재정 관리에 대한 정직성은 매우, 매우 중요하며 사역의 성공에 핵심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바울은 이미 7장 6절에서 우리가 누구에게도 불쾌감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누구 앞에도 걸림돌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재정에 관한 한 올바르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돈을 요구하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섬세하게 움직입니다. 그는 은혜의 주제를 식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첫 번째 사항은 그가 7절까지 직접적인 호소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들에게 호소합니다. 그는 애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두 번째는 베푸는 것과 관련하여 은혜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것입니다.

마케도니아인의 헌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가 박해를 받고 극도로 가난했지만 관대하게 헌금한 마케도니아인의 예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사랑과 은혜의 증거이며, 둘 다 베푸는 데 충분한 동기를 구성합니다. 사랑과 은혜는 베푸는 데 동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절부터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의 주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식별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알기를 바랍니다. 즉, 마케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어진 은혜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완료 시제로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가 완료형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미 행해졌지만 지속적인 효과가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행해졌지만 그 효과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거기에 있는 그리스어 단어는 완료형입니다. 즉, 그것은 은혜가 그들의 삶에서 여전히 작용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것은 단지 일회성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계속되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가 말하듯이, 열쇠, 계속 주는 선물입니다. 바로 그것이 마케도니아 사람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계속 주는 은혜입니다. 지속되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주었을 때 은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은혜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그것은 은혜로 가득 찬 교회였고 은혜로 가득 찬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마케도니아 지방의 북부 헬라,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에 교회를 세웠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그 본보기에 호소했습니다. 그는 형제 자매들에게 일어납니다. 아델포이 .

여기, 오히려. 아델포이 . 형제 자매들이 함께.

이제, 보통 사람들은 그것을 형제로 번역하지만, 이들은 형제 자매입니다. 고린도의 형제 자매들은 마케도니아 교회들이 헌금에 관대하고 열정적으로 바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능력을 부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경험에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구원의 선물인 은혜는 바울 신학의 핵심입니다.

바울의 신학은 은혜의 신학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것은 책임 있는 은혜라는 점을 명심하세요. 모든 것이 그것, 즉 하나님의 은혜에서 흘러나옵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의 신학은 은혜의 신학이며, 그의 글의 가장 실용적인 부분까지도 알려주는 신학입니다. 편지 서두에 있는 그의 인사에는 하나님 ,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기를 기원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의 작별 기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기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은혜를 선포한 후, 바울은 이제 2절에서 4절까지 그 은혜가 마케도니아 사람들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 설명합니다. 분명히 드러난 은혜. C는 그들의 상황에 대한 설명입니다.

극심한 고난의 시련 속에서. 극심한 고난의 시련. 무슨 뜻인가? 고난으로 인해 생긴 극심한 시련.

그리고, 깊은 빈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깊은 빈곤, New American Standard Bible에 있는 것과 같아요. 깊은 빈곤.

마케도니아인들에게 박해는 기쁨을 낳았습니다. 우리는 7장 4절에서 그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흥미롭습니다. 박해는 기쁨을 낳았고, 빈곤은 관대함을 낳았습니다.

어떻게 그럴까요? 바로 거기에 또 다른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하는 일입니다. 아시다시피, 박해가 있을 때는 기뻐할 때가 아니지만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가난은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했기 때문에 관대함을 이끌고 생산했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들의 가난의 정도는 아마도 다양한 요인 때문일 것입니다. 아마도 그 중 하나는 사회적으로 소외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독교 신앙 때문에, 그리고 마케도니아의 일반적인 경제 상황 때문에 많은 괴롭힘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면에서, 그들은 정말 나빴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측면에서, 그들은 고립되고, 배척당하고,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마케도니아의 전반적인 경제 전망은 매우 나빴습니다. 제 말은, 마가렛 스칼이 그녀의 신약성서 국제 주석에서 암시한 내용입니다. 522~523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상황이 매우 끔찍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흥미롭습니다. 관대한 부의 넘치는 극심한 빈곤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말합니다.

관대한 부에서. 여기서 관대한이라는 단어는 관대함을 뜻합니다. 관대함은 관대함을 뜻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풍부하게 준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용어는 특정 여론조사 맥락에서 매우 독특합니다. 그 일반적인 의미는 보통 단순함, 성실함 또는 솔직함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관대함은 그 단어의 확장된 의미입니다. 그들은 매우 관대했습니다. 풍부한 기쁨과 극심한 빈곤이 관대함의 부로 넘쳐났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대조를 볼 수 있습니다. 고통과 기쁨, 빈곤과 부. 이 대조는 우리가 배워야 할 귀중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믿는 자의 기쁨은 외적인 상황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그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그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행복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해 박해받을 때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그는 기뻐하고 지극히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5장 41절에서 사도들, 초기 제자들의 예를 봅니다. 그들은 매를 맞고 그런 일이 있는 후에 나갔습니다. 그들은 기쁨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물론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바울은 유배민과 해외로 흩어진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기억하세요, 유배민은 자신의 집의 편안함에서 쫓겨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도 같은 내용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은 이것이 마케도니아인에게만 국한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신자로서 우리의 삶의 특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의 피조물이 되는 것을 거부해야 합니다. 이것은 마케도니아인들에게도 해당됩니다. 따라서 바울은 그들의 최고의 희생을 고린도인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바울은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마케도니아 사람들의 관대함은 네 가지 면에서 증명되었습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1번은 그들이 자원하여 자기들의 능력에 따라, 심지어 자기들의 능력을 넘어 주었습니다. 1번은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많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의 능력을 넘어선다. 그들은 주었다. 그들은 그들의 제한된 자원이 보통 허락하는 것 이상으로 주었다.

아시다시피, 오늘날 교회의 목사들은 때때로 줄 필요가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줄 필요가 없습니다. 없으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과부의 푼돈을 준 여자에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고, 그들은 그 여자에게 푼돈을 간직하고, 주지 말고, 너무 가난해서 줄 수 없다고 말씀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교훈을 얻으세요.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 마케도니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사용된 언어는 매우, 매우 강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수단에 따라, 심지어 그들의 수단을 넘어서도 주었습니다.

그래서, 1번, 그들은 할 수 있는 만큼, 심지어 그들의 능력을 넘어서까지 주었습니다. 2번, 그들은 전적으로 스스로 주었습니다. 그들은 회유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조종당하지 않았습니다. 속임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사기 위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역에서 베푸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봅시다. 글썄요, 당신이 이걸 저에게 보내면, 저는 이걸 당신에게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물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렇게 많은 달러나 그 돈의 액면가를 제물로 바친다면, 우리는 당신에게 이 책을 보냅니다. 글썄요, 그것은 제물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책을 사는 것뿐입니다. 당신이 준다면, 당신은 그저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적으로 스스로 주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은 간청하기보다는 온전히 주었습니다. 바울은 이 단어만 여기와 8:17에서 디도를 묘사할 때 사용하는데, 여기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바울의 어떤 강압도 없이 마케도니아인들은 자발적으로 주었습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줬다는 것을 아는 것은 항상 중요합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그들 스스로의 주도로, 그리고 2번째로, 그들 스스로의 자유 의지로. 그들 스스로의 주도로, 그들 스스로의 자유 의지로, 그들은 주었습니다. 마케도니아 사람들의 극심한 빈곤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관대하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능력에 따라 줄 뿐만 아니라, 마음을 주었습니다.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준 것의 양이나 양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행한 정신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신과 함께라면 희생적으로 바친 몇 센트가 수십억 달러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실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인들이 본받을 모범으로 그들을 사용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한 일을 보십시오. 셋째, 마케도니아인들은 바울에게 그 특권을 간절히 간청했습니다.

들어보세요, 다시 사용된 단어는 배려, 은혜입니다. 마케도니아인들은 바울에게 성도들을 위한 이 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간절히 간청했습니다. 바울의 말은 매우 신중하게 선택되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것과는 달리, 그것들은 압축적이지만 의미심장하다. 긴급히 또는 진지하게라는 단어는 그리스어 단어를 의역한 것으로, 그리스어로는 메타폴리스 를 의미한다. paraklesios , 큰 격려와 함께. 그들은 큰 격려와 함께 긴급하게 주었습니다.

바울이 왜 그걸 반복하는 거지? 그냥 은혜가 무슨 뜻인지 알려주려고. 바울은 1절에서 은혜를 쓰고, 2절에서는 은혜를 은총의 특권으로 쓴다. 그리고 바울은 은혜를 나눔, 성도들을 위한 사역에 참여하는 것, 즉 구제하는 것, 가난한 성도들의 필요를 구제하는 것으로 정의한다고 말한다 .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간절히 간청하며 말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걸 읽을 때,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그들은 주기를 간청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누군가가 주려고 간청하는 거지? 우리가 사람들에게 주라고 간청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주려고 간청하는 거야. 바울은 동정심이 있었던 모양이야. 바울은 동정심이 있었고, 그들의 상황을 알고 있었고, 그들에게서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았어.

아니면 바울은 이제 우리는 당신의 상황을 이해합니다. 당신 스스로 도움이 필요하고, 그러므로 당신은 도움이 필요하지 않지만, 그들은 주기를 간청했습니다. 제 말은, 바울은 그들이 주기를 간청했다고 말했고, 5절에서 계속해서, 이것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그들이 먼저 주님께 자신을 드렸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마케도니아 사람들의 관대한 행동에 대한 네 번째 증거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기대했던 것 이상을 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기대를 넘어섰습니다. 그들이 준 금액과 기여하는 방식 모두에서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먼저 주님께, 그다음에 우리에게 자신을 드렸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은 중요성, 우선순위, 중요성,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드리는 것, 하나님의 도구로 드리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여기서 꽤 많은 것을 말하는 것을 봅니다.

그는 마케도니아인들이 베푸는 감정 상태를 묘사했습니다. 그들은 베푸는 것을 간절히 기도하거나 간청했습니다. 그들은 베푸는 것을 특권으로 여겼습니다.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상황을 변명으로 삼아, 글썄요, 폴 형제님, 이해하시죠. 하느님께서도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는 걸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지 않는 거예요. 아니요, 그들은 자신의 상황을 변명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사실, 바울은 기꺼이 그들을 용서했을 것이지만,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어려운 상황과 자신의 필요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 기회를 박탈당하거나 거부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케도니아인들이 참여하려는 열의는 바울이 그들을 고린도인들의 모델로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인들의 베품을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헌신과 사도로서 그에게 충성하는 맥락에 두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마케도니아인들은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열망이 너무나 강렬해서 경제적 성취 때문에 그들에게 열린 사역 기회에 참여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아십니까? 고린도인들은 추론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에게 아직 주라고 말하지 않고 바울은 토대를 마련하고 말했습니다. 마케도니아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삶에서 나타납니다. 이제 기억하세요, 그는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고린도후서 6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바울과 고린도 사람들 사이의 화해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명할 또 다른 기회이며, 바울은 마케도니아인의 사례를 사용하여 말합니다. 보세요, 여기 마케도니아인이 있습니다. 그들은 가난했습니다. 그들은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들의 경제는 나쁘긴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삶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줍니다. 하지만 그들은 줄 뿐만 아니라, 관대하게, 그리고 후하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이 주었습니다.

하지만 들어보세요, 그들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이 주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고, 그 다음에 자신을 우리에게 드렸습니다. 바울은 결론을 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었다면,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시작합니다. 6절까지 봅시다. 7절, 1절에서 6절까지는 사실, 그런데, 그리스어로는 한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봅시다. 1절에서 6절은 단지 한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7절은 전환입니다.

7절은 전환입니다. 지금 어떻게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명령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것을 명령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전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들에게 어필할 것이다.

마케도니아 사람들의 예를 살펴본 고린도 사람들은 이제 바울로부터 더 많이 주거나 오히려 더 뛰어나게 주라는 부추김을 받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한 고린도 사람들의 초기 열정은 분명히 쇠퇴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열광적이었습니다.

고린도인들에게 완성의 부족을 꾸짖기보다는, 바울은 그들의 초기 열정을 칭찬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들의 열망에 호소합니다. 7절에서 말하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모든 일에서, 곧 믿음에서, 말에서, 지식에서, 극진한 열의에서,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에 있어서 탁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당신이 이러한 일반적인 사업에서 탁월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 바울이고, 참으로 목사입니다. 그는 그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보세요, 고린도 사람들아, 여러분은 믿음에 뛰어나고, 말에 뛰어나고, 지식에 뛰어납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이 간절히 원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물론, 여러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에 있어서도요.

그러므로 우리는 또한 여러분이 이러한 일반적인 사업에서 탁월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들에게 관대함을 도전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8절. 나는 이것을 명령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열의와 여러분의 사랑의 진실성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관대한 행위를 여러분은 아십니다. 그는 부유하셨지만 여러분을 위해 가난 해지셨고,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보시다시피,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완수하라는 도전은 8절에서 15절까지 계속됩니다. 사도는 그들이 베푸는 은혜를 직접적으로 그리고 본질적으로 동기를 부여하려는 방식을 그가 선포하는 복음과 연결합니다.

따라서 그는 우리에게 모든 기독교적 베품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바울은 베품의 더욱 고무적인 본보기에 호소하면서 이를 수행합니다. 그는 당면한 구체적인 과제에 대한 의미를 끌어냅니다.

바울이 “잠깐만요.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당신에게 충분한 예가 되지 않는다면, 다른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음, 마케도니아 사람들이요.”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령으로 여러분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특히 마케도니아인들에 대한 여러분의 열의를 호소합니다. 그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명령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해야 할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을 뿐입니다.

바울은 마케도니아 사람들의 열의의 본보기를 통해 고린도 사람들의 사랑의 진실성을 활성화하여 그들이 모금의 임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의도합니다. 8절에서 바울은 사도적 권위에 근거하여 고린도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린 것이 아니라고 재빨리 말합니다. 모금은 사랑의 일, 은혜의 사역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의 사랑이 마케도니아 사람들의 사랑보다 적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마케도니아 사람들의 모범이 그와 동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그들의 사랑의 현실을 시험하는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더 나은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그는 무엇을 합니까? 그는 부유했지만 가난해지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들은 가난했지만 부유해질 수 있었습니다. 알다시피, 바울의 그리스도 결정은 의심할 여지 없이 자발적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육신으로 오셔서 인류가 구원의 영적 부를 나눌 수 있도록 자신의 부를 내주셨습니다. 지역 교회나 단체 또는 교파와의

경쟁보다는 그리스도의 희생이 주는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9절에서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노라 말합니다.

그는 다시 핵심 단어인 charis를 사용합니다 . 그리고 여기서 그것은 중요성의 정점에 도달합니다. 바울이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바울은 최고의 이유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4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인들이 베푸는 은혜에 있어서 뛰어나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리스도의 모범입니다. 이 경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호사스러운 은총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모범이 고린도인들에게 헌금에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능력을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당신은 이것을 저항할 수 없습니다. 마케도니아인의 예를 사용하면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말합니다. 글썄요, 마케도니아인의 예를 듣지 않는다면, 그것이 당신에게 그다지 의미가 없다면, 제가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그걸 비난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걸 거부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당신 스스로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모범이 고린도인들에게 헌금에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는 자신이 부자라고 말했지만 가난해졌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고린도인들이 이 모든 것이 자신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것입니다. 바울이 당신을 위해 그것을 말했고, 그는 처음에 말한 그 구절에서 요점을 강조했습니다. 당신을 위해 그는 가난해졌습니다.

그는 여러분을 위해 가난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 가난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렇게 말합니다. 글썄요, 여러분을 위해 가난해지셨고, 부유해지셨는데, 그 가난으로 여러분이 부유해지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게 그가 문자 그대로 번역한 방식입니다. 당신을 위해. 그래서 그는 당신을 위해라고 말하면서 시작합니다. 그가 당신이 부자가 될 수도 있다고 말할 때, 그는 고린도인들의 영적 풍요로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 말은, 바울이 망치로 딱 잘라서 고린도인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 뭔가 해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여러분을 위해 그는 가난해졌어요.

그는 모든 것을 소유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성육신 전체에 대해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의 정점에서 빈곤의 심연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십니다.

기억하세요, 그는 말했습니다. 여우는 굴이 있고, 새는 둥지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를 둘 곳이 없습니다. 창조주 자신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태초에 세상이 있었고, 세상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세상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그로 말미암아 만들어졌고, 그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창조주이시지만, 그는 영광을 버리고, 위의 부를 버리고, 고린도 사람들을 위해 가난해졌고, 바울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고린도 사람들아, 그가 한 모든 일은 여러분을 위해서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는 육신을 취했고, 물론 그는 가난해졌습니다. 그는 당신을 위해 자신의 영광을 떠났고, 그가 그렇게 했다면, 지금 당신이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육신으로 오셔서 인류가 구원의 영적 부를 공유할 수 있도록 자신의 부를 내주셨습니다. 경쟁보다는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리의 기부 동기가 되어야 하며, 그저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우리는 관대한 기부자, 즉 관대하게 주시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기부합니다.

야고보가 그를 묘사한 방식이 아니었나요? 그는 모든 좋은 선물과 완전한 선물은 빛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에게서 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관대하게 베푸십니다. 관대하게.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우리 아버지처럼 보여야 합니다.

우리도 관대한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한 말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타당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면 10절에서 12절로 가보죠. 기꺼이 그리고 능력에 따라. 8절과 9절에서 발견한 것이 최고의 예입니다.

이제 10절에서 12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주셨고 고린도인들에게 기꺼이 그리고 능력에 따라 주라고 촉구하고 있음을 봅니다. 10절에서, 이런 방식으로 나는 내 조언을 합니다. 작년에 시작한 당신이 무언가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언가를 하기를 원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명령하기보다는 다시 조언을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합니다. 작년에 시작한 당신이 무언가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언가를 하기를 원하는 것도 합당합니다.”

11절, 이제 그것을 마쳐라. 그러면 너희의 열심이 너희의 재물에 따라 그것을 완성함으로써 일치할 것이다. 열심이 있다면 그 선물은 사람이 가진 것에 따라 받아들여질 것이지, 사람이 가지지 못한 것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우리는 그 구절들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그들은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쓰기 1년 이상 전인 작년에 모금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들이 이 프로젝트에 대한 초기의 열정을 설명합니다. 그들은 기부한 최초의 교회였지만, 또한 모금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최초의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to will의 현재 시제는 고린도 사람들의 오랜 열망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참여하고 싶었지만, 그들은 사도와의 악감정 때문에 프로젝트를 포기한 듯합니다. 그들은 포기했고, 바울은 이제, 글썄요, 당신이 이전에 한 일을 칭찬하지만, 이제 당신은 일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를 적절한 결론으로 이끌어야 했습니다.

그 목적은 모금의 완성이 고린도인들의 본래의 열의를 보여주게 하려는 것이었고,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마케도니아인들에게 이것을 자랑한 것이 그들의 참여를 동기부여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12절.
간절함이 있으면 그 선물은 있는 대로 받아들여지고 없는 대로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바울은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을 고린도인들에게 직접 적용합니다. 그는 그들이 1년 전에 시작한 노력을 완수하도록 격려합니다. 다시 한번, 바울은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비록 그들의 원래 의도가 좋았지만, 그것을 실행해야 했고,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좋은 의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항상 좋은 의도로 포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무언가를 의도하는 것은 그것을 실행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나는 기도할 생각이다. 기도할 생각은 없다. 기도해.

나는 성경을 읽을 생각이다. 성경을 읽을 생각은 없다. 진짜로 성경을 읽어라.

의도는 보통 승리를 가져다주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오, 저는 금식을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금식을 시작하세요. 저는 기도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기도를 시작하세요.

나는 전도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전도를 시작하세요. 나는 줄 생각입니다.

그러면 주기 시작하세요. 의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좋은 의도가 있어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교회에서 프로젝트가 있을 때, 목사로서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프로젝트가 있을 때, 우리는 “목사님, 저는 기부할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글쎄요, 은행에 의도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당신은 수표를 은행에 가져갑니다. 그리고 폴은 당신에게 고린도인들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의도만이 아니라요. 저는 당신의 의도 이상이 필요합니다.

나는 당신이 제물을 바치고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13절에서 15절에서 바울은 평등에 근거한 호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구제가 있고 여러분에게는 압박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의 현재 풍요와 그들의 필요 사이에 공정한 균형을 맞추는 문제입니다. 그들의 풍요가 여러분의 필요를 위해 존재하게 하여 공정한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많이 가진 자는 너무 많지 않았고, 적게 가진 자는 너무 적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들어 어떤 사람들의 필요를 덜어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사이에서 베푸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따라야 하며, 풍요를 누리는 사람들이 궁핍한 사람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이 원리는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생활 필수품의 분배를 균등하게 하여 모든 사람이 충분한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침 역할을 합니다.

바울은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배급함으로써 이를 설명합니다. 출애굽기 16

장 14절에서 22절을 읽어보면 모든 사람이 필요에 따라 모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여행하는 동안 받은 매일의 만나 배급으로 이를 설명합니다. 알다시피, 바울이 이 글을 쓰고 있던 이 시점에서 고린도는 물질적 번영을 표현하고 있는 몇 안 되는 그리스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고린도 신자들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과 그들의 풍요를 기꺼이 나누었다면, 아마도 나중에 예루살렘 성도들은 고린도인들도 불황을 겪을 때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입장에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거나 부르는 사회주의의 한 형태를 재산을 평등하게 함으로써 세우려고 시도한 것이 아니라, 물질적 필요를 겪고 있는 신자들의 극심한 고통을 덜어주려고 했습니다. 어떤 종류의 자기 희생을 행사할 기회가 주어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동하기를 원하실 때, 우리 역시 적절한 성향을 가져야 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적절한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이 행동에는 우리의 시간과 힘, 그리고 재화가 포함될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8장의 다음이자 마지막 부분은 16절에서 24절까지인데, 바울이 디도와 다른 형제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디도와 다른 형제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과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 두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는 우리의 간청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 더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스스로 여러분에게 갈 것입니다. 그와 함께 우리는 모든 교회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 유명한 형제를 보냅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또한 교회에서 임명하여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이 관대한 사업을 집행하고 우리의 호의를 보이도록 우리와 함께 여행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베푸는 이 관대한 선물에 대해 아무도 우리를 비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보시기에도 옳은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우리는 우리의 형제를 보냅니다. 그는 우리가 종종 시험해 보았고 여러 가지 일에 열심이 있음을 알았지만, 여러분에 대한 큰 신뢰로 인해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열심이 있습니다. 디도는 여러분을 섬기는 나의 동료이자 동역자입니다.

우리 형제들은 교회의 사자요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여러분의 사랑의 증거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우리의 이유를 보여 주십시오. 보시다시피, 이 문단은 베푸는 것과 지도자가 옳은 일을 해야 하는 책임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들로부터 돈을 받고 그것을 지출하는 데 있어서 높은 기준을 갖는 것, 돈을 받고 돈을 쓰는 것. 우리가 신자들로부터 제물을 받을 때, 우리가 그것을 받는 방식과 우리가 그것을 쓰는 방식이 모두 중요합니다.

아시다시피, 돈을 다루는 사람들은 항상 조사를 받습니다. 옳든 그르든요. 누군가는 항상 누군가를 자금을 잘못 다루었다고 비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폴조차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컬렉션에 기득권이 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가 뭇을 챙기거나 적어도 자신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그를 비난했습니다. 20절에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관리하는 이 관대한 선물에 대해 아무도 우리를 비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는 신자들이 모든 기독교 단체, 교회 또는 조직의 리더십이 특히 기금을 획득하고 지출할 때 높은 수준의 정직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기대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돈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부정직하거나 부적절하다는 인상을 피하기 위해, 모금 프로젝트에 참여한 교회들은 모금한 돈을 가지고 갈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택했습니다.

디도는 고린도에서 바울의 헌금을 대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돈뿐만 아니라 고린도 사람들에게도 중요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는 그들의 인색한 태도가 장기적으로는 그들을 해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절과 21절에서 우리는 바울의 생각을 봅니다. 저는 그 두 구절이 바울의 생각을 우리에게 요약해 준다는 뜻입니다.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나쁜 거래의 모습조차 비난받지 않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첫 강의 이후로 계속 반복해 온 한 단어로 돌아가 봅시다. 정직성. 그 단어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정에서의 성실성. 성실성, 재정 관리. 알다시피, 대부분의 경우 폴이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걱정한다고 말하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대부분 그는 책임을 회피합니다. 당신이 나를 판단하든, 나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내 판단은 신에게 있습니다.

나는 사람들의 승인을 얻지 못합니다. 당신은 오직 신의 승인만 원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바울은 가능한 모든 것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모든 구경꾼이 모금된 기금으로 하는 일이 꼼꼼하게 정직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도 그리스도의 대의가 불신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시대에는 사역과 자신을 모두 엉망으로 만들고 재정적 횡령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이름에 오점을 남긴 목사들의 사례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의 지갑을 나르는 유다가 자금을 횡령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시다시피, 수세기 동안 그리스도의 대의가 돈에 대해 부주의하거나 부정직한 지도자들에 의해 무시당하는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정직과 정직에 대한 인식이 모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무엇을 할까요? 그가 하는 것 중 하나는 돈을 다룰 때마다 여러 리더십을 설정하여 한 사람만이 프로젝트를 담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세 사람을 고린도로 보냈고, 나중에 대표단이 그와 함께 갔습니다. 그가 선물을 예루살렘으로 가져갈 때, 많은 사람들이 감독하고 서로 재정적 유혹을 돕습니다. 이는 매우 강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방금 살펴본 이 부분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 하나를 제공합니다.

교회 자금이나 사역을 다룰 때는 엄격한 정직성이 있어야 합니다. 카이사르의 아내처럼 교회에서 재정을 다루는 사람들은 비난받을 일이 없어야 합니다. 재정을 다루는 방식은 공개적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증거는 21절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도와 동기가 정직할 때를 아신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동료 신자들과 외부 세계에 정직하고 합당하게 보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재정을 형편없이 다루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우야 박사입니다 . 이것은 세션 9, 고린도후서 8, 베푸는 은혜입니다.